

북한의 일상생활과 '문화 아카이빙'*

'Cultural Archiving'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설문원(Seol, Moon-won)**

1. 머리말
2. 일상생활과 일상생활 아카이브
 - 1) 일상생활의 개념과 관점
 - 2) 북한 일상생활 연구와 자료
 - 3) 북한 일상생활 자료 축적의 필요성
3. 북한 일상생활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
 - 1) 일상생활 아카이브의 개념과 목적
 - 2) 2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일상생활 아카이브 사례
 - 3) 일상생활 기록화와 '문화 아카이빙'
4. 북한의 일상생활 아카이브 모형
 - 1) 구축 원칙
 - 2) 구축 절차와 적용 사례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4055916).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eol@pusan.ac.kr).

■ 투고일: 2020년 06월 30일 ■ 최초심사일: 2020년 07월 03일 ■ 최종확정일: 2020년 07월 11일

■ 기록학연구 65, 321-363, 2020, <https://doi.org/10.20923/kjas.2020.65.321>

〈초록〉

분단 70년을 거치며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장기적인 아카이브 구축은 북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상생활을 “제도, 사회통제, 규범, 질서 등의 사회구조적 측면과 개인의 다양한 실천과 행위가 교차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일상생활의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 일상생활에 관한 증거와 기억이 풍부하게 담긴 아카이브 구축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상생활의 특징을 반영한 방법론이 필요한데, 이를 ‘문화 아카이빙’이라고 명명하고 그 핵심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북한 일상생활 아카이브 구축의 원칙과 절차가 포함된 모형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구축 절차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북한 생활·문화·역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살펴보았다.

주제어 : 북한, 일상생활, 일상생활 아카이브, 문화 아카이빙, 생활문화

〈Abstract〉

Throughout the 70 years of division, cultural heterogeneity between the two Koreas is accelerat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rchive of the everyday life of North Koreans could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North. Here, everyday life is defined as social space where various practices and actions of individuals intersect with the social structure including institutions, social control, norms, and ord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pply this concept of everyday life to design an archive-building model rich in evidence and memori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To this end, a methodology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veryday life is needed, which is called ‘cultural archiving’. By applying the ‘cultural archiving’ methodology, a model that includes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building everyday life

archives in North Korea is proposed. This also investigates how each building process could be applied through actual example(a database of life, culture, and history in North Korea). In addition, the actual case (“Database of Living History and Culture in North Korea for the Foundation of Unified Korea”) is investigated as to how each construction procedure could be applied.

Keywords : North Korea, everyday life, everyday life archives, cultural archiving, living culture

1. 머리말

북한 연구의 주제와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자료의 수집과 활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설문조사, 심층면접, 구술사 등 연구 자료도 다양해졌으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포함한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¹⁾

이러한 논의와 함께 북한의 주민생활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였다. 북한의 일상생활 연구는 단순히 북한의 지도자나 지배체제가 아닌 주민생활을 연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연구 패러다임 및 방법론과 관련된다. 박순성·고유환·홍민은 일상생활 연구가 거시적 담론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일상의 구체적인 실천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어떻게 거시적 사회동학과 연동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방법론적 의미를 강조한다(박순성·고유환·홍민 2015, 147). 일상생활은 연구방법론에 따라 정치, 경제, 교육, 도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2003), 동국대학교 일상생활연구센터(2010), 북한연구학회(2015) 등의 저서를 통해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일상생활 연구를 추진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북한의 일상생활 자료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연구방법론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자료의 선별 수집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생활 자료는 ‘핵심자료의 선별’보다 ‘다양한 자료’를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일상생활의 자료는 구술이라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지만 이를 공유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체계는 미비하다. 수집한 자료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이탈주민이나 북한 생활 관찰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추가할 수 있는 열린 아카이브가 마련된다면 북한의 일상문화 정보원이자 현대적 의미의 민속자료로서 고유한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DB 개발을 넘어 체계적인 아카이빙 모형을 설계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아카이브를 “특정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어떤 종류의 사건을 기록한” 자료의 집합체로 정의한 사회학자 하워드 베커는 생산자가 연구자의 의도나 용도를 모르는 채로 자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료의 조작 가능성이 낮은, 사건의 ‘목적자’가 된다고 보았다(베커 2020, 325-327).

이러한 아카이브 구축에는 공공영역에서 정립된 기존의 아카이빙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북한 일상생활 및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를 ‘문화 아카이빙’으로 명명하고 원칙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문화 아카이빙’은 아직 기록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다양성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증거 기반의 아카이빙’뿐 아니라, 기억 주체의 관점을 중시하고 아울러 기록의 동시대적 활용을 고려한, 새로운 방법론을 표현하는 데에는 ‘문화 아카이빙’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보았으며, 그 내용을 본문에서 제시하였다.

일상생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목적과 성격은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자료의 2차적 활용을 지원한다는 목적에 따라 북한 일상생활의 기억과 증거가 풍부하게 담긴 정보지식자원을 조직,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화 아카이빙’ 개념을 적용한 아카이브 구축 모형을 원칙과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하였고, 이러한 절차별로 실제 아카이브(서울대 북한 생활·문화·역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모형의 의미와 구현의 문제를 짚어보았다.

2. 일상생활과 일상생활 아카이브

1) 일상생활의 개념과 관점

북한의 일상생활 아카이브는 왜 필요하고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지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일상생활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일상생활은 단순히 일반 대중이나 주민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공직자나 고위계층의 생활이나 공적 생활과 대비되는 사생활에 국한되지 않는다.²⁾ 일상은 또한 비일상과 대비되는 개념도 아니다. 일상생활에는 반복적인 것도 있지만 축제와 같이 특별한 것도 있다(박순성·고유환·홍민 2015, 159).

일상성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모든 하루하루는 모두 일상생활이며, 세상은 모두 개인의 시간으로 수렴된다. 일상성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매일의 테두리 속에서 조직하려는 일상의 관성”이며, 사람들의 생활에 존재하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리듬이다(박순성·고유환·홍민 2015, 159). 전쟁이나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하면 일상성은 붕괴되고 일상생활에는 균열이 생긴다. 그러나 일상성은 전쟁이나 전염병, 심지어 사형장에서조차 비일상을 압도한다(이진경 2002, 34; 박순성·고유환·홍민

2) 일상생활을 흔히 일반 대중이나 주민 등 소위 ‘보통사람들’의 생활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생활은 특정 집단의 생활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령 김종옥은 사회주의 체제의 일상생활 연구의 일환으로 “북한 관료들의 일상생활세계”를 분석하고 있다(김종옥 2010, 248-291).

2015, 159에서 재인용). 『1984년』의 저자 조지 오웰은 식민지 경찰로 근무하던 버마 생활에서 원주민 사형수가 교수대로 가면서 조그만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발을 옆으로 가볍게 옮기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는다. 오웰은 일상성의 복원을 목격하면서 살아 있는 생명의 신비와 가치를 깨닫는다(오웰 2003, 26). 인간의 자기보존 필요에 따라 모든 비일상은 일상으로 수렴되며 일상생활은 일상성이 지배하는 개인의 역사 전체라고 볼 수 있다(박순성·고유환·홍민 2015, 159쪽).

이때 일상생활은 “제도, 사회통제, 규범, 질서 등의 사회구조적 측면과 개인의 다양한 실천과 행위가 교차하는 사회적 공간”이다. 일상생활을 이렇게 ‘구조’와 ‘행위’가 연계되는 공간으로 바라보며 연구자들은 ‘구조의 강제’와 ‘행위의 실천’이라는 두 측면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박순성·고유환·홍민 2015, 151-152). 북한에서는 일상문화 대신 ‘생활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생활문화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개인생활과 공동생활 속에 구현된 문화”를 말하며, “민족 특성이 구현된 건전하고도 문명한 우리식의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국가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오창은 2018, 43-44). 북한 당국의 이러한 방침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규정하고 방침의 변화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일상적 실천과 삶의 전략이 지배집단의 공식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도 주목한다(박순성·고유환·홍민 2015, 144). 일상생활은 지배와 순응의 사회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체제가 일상생활을 완전히 식민지화하는 것”의 불가능성과 “권력의 작동방식을 소비하는 개인의 실천에 주목”하면서 일상적 저항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박순성·고유환·홍민 2015, 162-163).

한편 주민의 일상에는 국가통제 메커니즘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북한 주민 개개인의 일상적인 행동양식에는 “국가통제 외에도 전통, 미신 등 다양한 문화적 동력이 작용”한다. 흔히 집단기억의 양태로 존재하는 전통이나 미신 등이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문화적 행위에 반영된다. “국가와 권력의 의도와 전략이 개개인의

일상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국가나 권력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박순성·고유환·홍민 2015, 167), 식생활, 생애 의례와 같은 생활문화에는 전통을 포함한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새로운 문화체계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구조적 맥락과 일상의 경험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기록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적인 ‘행위’ 정보와 다양한 측면의 ‘구조’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설계가 중요하다. 구조에는 국가 체제도 있고,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이나 도덕도 있다. 행위는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실천을 의미하며 이러한 실천은 주로 구술이나 개인자료를 통해 기록화(documenting)된다. 구조는 북한의 공식담론, 각종 조사자료 등을 통해 추출할 수 있다. 행위와 구조에 대한 정보들은 각각을 정보개체로 관리하되 각 개체를 연계해줄 때 그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개별 행위(경험)가 기록화된 정보개체는 다중의 구조 개체 및 다른 행위 개체와 연계될 수 있다.

2) 북한 일상생활 연구와 자료

(1) 북한의 공식 자료

북한의 일상생활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문헌 및 언론자료, 통계자료, 탈북자 구술 등 다양한 자료가 있다. 일차적으로는 북한 당국이 생산하는 공간(公刊) 문헌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각종 기록과 팸플릿, 신문, 잡지, 연감, 단행본, TV와 라디오 방송,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 등의 공간 자료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상투적인 수식어로 가득하고, 연구자에게 중요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류길재 2003, 46-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들은 북한 일상생활의 체제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북한의 체제적 특성상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작(『김

일성 선집』[1952, 1953-1954, 1960-1964], 『김일성 저작선집』[1967-1994], 『김일성 전집』[1992-2002], 『김정일 선집』[1992-2000] 등)은 일상생활 연구에도 중요하다. 『김정일 선집』에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통일 외에도 사회문화에 관한 저작이 약 40%에 달한다(류길재 2003, 61-62).

또한 신문이나 잡지 등 북한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활용할 때에는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매체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언론은 사상교양, 조직동원, 문화교양, 대외선전 및 외교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명절의 의의’에 관한 신문 기사나 영화관 안내 기사는 문화교양자료로 분류된다(류길재 2003, 89-91).

오창은(2018, 50-51)은 공간 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 일상생활의 “역사적이면서 정치적인 맥락을 재구성”하려면 ‘공식적 메시지’의 이면을 읽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양문수(2015, 109-137)는 북한의 공식 문헌 독해법으로 “당위적 표현에서 현실을 유추”하거나 “모순성의 포착”을 통한 해석, 북한적 맥락에서의 용어 해석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독해는 각 연구자의 몫이지만, 이를 지원하려면 각 텍스트의 생산맥락을 충분히 기술해야 하며 텍스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체계적이면서도 열린 ‘자료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공식문헌에서 핵심 자료를 발굴한 후 텍스트를 주제별 코퍼스로 개발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의 공식적 문장은 개인으로서 발화 주체가 빠진 채 ‘공적 수사’로 채워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오창은 2018, 50-51) 세심한 해석이 필요하며 아카이브를 통해 자료의 생산 맥락과 출처(provenance)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일상의 경험 자료

북한의 일상생활연구는 북한의 공식 담론 외에 주민들의 일상적 실천과 삶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야 한다. 일상문화나 일상성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의 대상이 연구자에게 친숙하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친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연구에서는 현장작업을 하게 되며 이는 ‘타자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오창은 2018, 49). 그러나 북한의 일상생활 연구는 일상을 관찰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일상생활 연구에 가장 큰 활용성이 높은 자료는 탈북이주민에게서 채록한 구술 자료다(조정아 2015, 188).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이주민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경험 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경험 사례에는 공식 메시지를 통해서는 알기 어려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수집한 구술 자료는 활용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를 갖는다. 첫째, 사례의 대표성과 전형성이라는 문제다(조정아 2015, 188). 국내에 입국한 탈북이주민의 출신성분이 편중되어 있고 이들이 북한 주민을 대표할 수 없으며, 더욱이 탈북이주민의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생산된 구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 다루는 개별 사례는 그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한 모종의 징후를 읽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다(조정아 2015, 188). 다만 사례를 기술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구술자의 경험을 맥락, 의도, 의미와 함께 서술하는 ‘두터운 기술(thick description)’이나 다양한 방법론을 결합하여 검토하는 삼각 검증 등이 필요할 수 있다(조정아 2015, 188-190). 한편 탈북이주민의 북한에서의 일상적 경험을 기록화하는 것은 더 이상 북한의 일상 문화에 속해 있지 않지만 완전히 절연되지도 않은 경계인이자 남한 사회의 소수집단으로서 이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둘째, 사례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이라는 문제다. 경험이나 전언(傳言)에 근거한 구술은 ‘기억’의 언어이며, 기억은 주관적 편집을 거친 결과로 사실과 거리가 있을 수 있고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경험 사례를 구술로 수집할 경우, ‘탈진실(Post-truth)’³⁾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탈북민의 구술에서 때로는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찾을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 탈북민 구술의 내용은 수많은 렌즈를 통해 굴절된 기억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경험과 구술 시점까지의 시간 격차,⁴⁾ 남한에서 살아가는 탈북민이라는 실존적 조건 등이 경험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에는 적어도 기억의 대상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다. 문화연구나 일상생활연구에서는 ‘정보’ 자체보다 ‘기억’이 중요할 수 있다. 탈진실의 가치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truthiness(주관적 진실)’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졌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무언가가 진실이라고 느끼면 이걸 ‘주관적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Millar 2019, 4). 이와 관련하여 조정아(2015, 184)는 북한도시 연구에서 탈북민 구술자료의 의미는 “역설적이게도 구술자료가 갖는 ‘주관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술 자료에는 “사실이나 정보의 요소와 함께 구술자가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와 감정, 무의식과 욕망”이 담겨 있으며, 구술을 통한 “기억의 재구성”은 인간 정체성의 재구성이라고 긴밀하게 연결된다(조정아 2015, 184).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탈북민의 구술은 때로 낱말의 정보로 분해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텍스트’가 된다. 따라서 아카이빙 측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구조화된 면담은 오히려 문화적 경험과 기억을 왜곡시킬 수도 있으며, 구조화된 면담이 이루어지더라도 생애사 구술 작업과 결합되어야 의미 있는 자료 생산과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기억을 굴절시키는 또 하나의 렌즈는 남한 연구자의 시선이다. 일상생활 연구에서는 외부 관찰자의 관점보다 행위 주체의 관점을 중시하지만(고유환 2015, 47), 구술 채록의 주체는 남한 연구자다. 남한 연구자가 수행하는 북한 연구는 ‘특수 관계에 있는 타자’의 시선일 수밖에 없으며(오창은 2018, 43-44), 따라서 분단 역사를 살아온 남한 학자 존재는 분단체계의 정치적

3) 옥스퍼드 사전의 2016년 올해의 단어로, 감정과 개인적 신념에 호소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보다 여론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관련된 신조어.

4) 개인사에서 시간은 사건의 축적물이고, 사건은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이념 지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박순성·고유환·홍민 2015, 145). 이러한 성찰적 접근은 아카이브 구축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연구자나 구술채록자는 객관성이라는 무대장치 뒤에 숨는 대신 스스로를 드러내 자료 선별과 수집의 의도, 절차를 밝혀야 한다. 구술 자료인 경우 면담자가 누구이며 어떤 구조로 면담이 진행되었는지 등을 포함하여 자료의 해설이나 기술(description)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향 가능성을 드러내고 이용자의 자료 해석을 지원해야 한다.

3) 북한 일상생활 자료 축적의 필요성

북한의 일상생활 연구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수집되지만 연구가 종료되면 활용되었던 자료들은 개인적으로 보관되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료의 체계적 축적과 공유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지만 원전 텍스트 및 일상의 경험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연구자 개개인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매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 또한 북한자료는 수집하기도 어렵지만 해석하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오창은은 “북한의 원전 텍스트 확보라는 곤란함” 뿐 아니라 “북한 원전 텍스트를 읽을 때 겪어야 하는 난독의 경험”을 언급한 바 있다(오창은 2018, 53).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분류, 조직, 기술하는 과정을 거쳐 축적된 아카이브가 필요하다. 조선왕조실록이 연구는 물론 문학, 드라마나 영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한글 번역에 힘입은 바 크지만 내용 색인(태깅) 작업으로 인한 효과이기도 한다. 북한의 공식 자료들에 대한 DB화와 색인은 북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일상생활 기록화는 기억투쟁의 의미를 갖는다. 기록화 전략에서 “기록된 과거와 경험한 과거의 불일치, 혹은 격차를 보일 때 기록화 전략은 일종의 기억 투쟁의 성격”을 갖게 된다(Hedstrom 2010, 163-180), 동

일한 사건이라도 경험의 내용은 그가 속한 사회적 지위나 처한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자연스럽게 각자가 기억하는 내용도 달라진다. 따라서 누구의 입장에서 기록을 남기느냐에 따라 과거는 다르게 재현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언론자료나 공식문서에는 강력한 체제 ‘프레임’⁵⁾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식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실제 경험 간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구술자 집단의 편향성이나 자료 수집의 제약조건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경험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의 수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행위주체는 인간이며, 이러한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행위 방식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와 삶의 방식이 만들어내는 일상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대표적이거나 전형적인 사례보다는 다양한 사례의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연구 목적이 다른 여러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라도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정확하고 풍부한 메타데이터가 부여된다면 정보의 새로운 활용가치가 발생하고 ‘재맥락화(re-contextualisation)’의 토대가 마련된다.

넷째, 자료의 장기적인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상은 전체 사회의 조망 속에서 파악해야” 하지만, 일상의 생활양식은 시간을 거쳐 형성되거나 변화하므로 그 역사적 과정도 함께 보아야 한다(남근우 2014, 168-169). 일상문화 연구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는 사회적 맥락과의 연계 속에서 구조화되어야 하며, 한편으로 특정 맥락과 관련하여 시계열로 축적되어야 한다. 북한 일상생활 연구에서 활용되는 북한의 공식 자료와 구술 자료는 모두 사실의 정확성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동일 주제에 대

5) 언론학에서 프레임은 “지각된 현실들 가운데 특정 측면을 선택하여 사건을 정의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 혹은 “이야기를 조직하는 방식” 혹은 “뉴스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프레임은 정보원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기사 내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이화연·윤순진 2013, 43).

한 자료가 장기적으로 누적된다면 그 변동추세를 확인⁶⁾할 수 있고, 출신지역, 출신성분, 직업, 성별 등 답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들을 고려하여 구술자 표본과 사례를 선정한다면 내용의 다양성은 물론 장기적인 추세 분석에서의 유용성이 높아질 것이다(조정아 2010, 429).

다섯째, 일상생활의 경험과 그 기억은 매일 소멸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획득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일상 경험의 기억을 구술기록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독립적 기억이라기보다는 다른 기억매체나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변형된 사회적 기억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것 자체도 의미는 있으나 일상생활 연구에는 실재를 반영한 개별화된 경험 자료도 필요하며 따라서 경험과 가급적 가까운 시점에 기록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일상생활 연구가 역사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축적해야 한다.

북한 일상생활 자료의 활용과 공유체계 구축이 어려운 것은 사생활 및 민감 정보의 보호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구술기록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관리되며 연구자 당사자 외에는 접근이 통제된다. 한편 불법적 사항이 있거나 몇 가지 정보를 조합하면 누군가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 수칙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탈북주민을 통한 일상의 경험 기억은 지금 수집되지 않으면 휘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정 기간 동안 '다크 아카이브(dark archives)'⁶⁾로 관리하더라도 자료의 축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호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명화' 등의 처리를 거쳐 재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6) 현재는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지만 미래의 이용을 위하여 보존하는 기록정보자료를 의미한다(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20).

3. 북한 일상생활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

1) 일상생활 아카이브의 개념과 목적

북한 일상생활 자료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수집·축적하려면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아카이브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일상생활의 기록화(documenting everyday life)’의 결과로 모아진 기록과 정보자료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기록화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말해줄 수 있는 기록을 선별 수집하고, 결락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록으로 ‘대상’을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기록화 대상은 어떤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인물이나 사건, 지역, 장소가 될 수도 있다. 기록화 대상이 개인의 일상생활이라면 이를 통해 수집, 생산된 기록의 전체는 일상생활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일상생활은 의식주를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주제와 관련되지만, 이러한 아카이브는 개인의 일상이라는 필터를 통해 생성된 기록의 축적에 초점을 맞춘다.

체계적 기록화를 위해서는 ‘기록화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을 수립하게 된다. ‘아카이빙’은 기록화보다 확장된 의미를 내포하며, 특정 주제(사건, 인물, 사회운동 등)나 지역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하여 이를 활용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화 전략 및 전략적 아카이빙에서는 기록 자체보다 기록화 대상에 대한 분석을 먼저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 일상생활 아카이브 구축은 기록화 대상으로서 ‘북한의 일상생활’에 대한 접근방법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카이브 구축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일상생활 아카이브를 만드는 목적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기억 주체가 중심이 되는 일상 아카이브의 경우 대체적으로 공동체의 집단기억과 정체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성소수자(LGBTQ) 아카이브,⁷⁾ 이주공동체 아카

이브('Moving Here'의 구술 영역), 그밖에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community archives) 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아카이브는 아카이빙의 주체가 내부자라는 특징을 가지며, 축적된 기록을 연구나 내부 교육 등에 활용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소수집단이나 빈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들이 문화 다양성 및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활발히 추진된 바 있다. 기록은 곧 기억의 문제이며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다는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호주에서는 공공아카이브에서도 다양한 소수집단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수집 및 아카이빙을 강조하는데, 이는 양국에서 일어난 비인도적인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연관시킬 수 있다.⁸⁾

둘째, 수몰이나 도시재개발로 사라지는 지역(종로 피맛골, 인천 수도권 마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흔적과 기억을 남기기 위하여 다양한 기록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장소나 공간의 역사,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생활사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주민 구술사업도 사라져가고 있는 삶의 양식을 기억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체로 사람보다는 지역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람들의 장소 체험과 지역에서의 일상도 중시된다. 외부 전문가가 자료를 수집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구술 채록을 하는 방식으로 아카이빙이 이루어진다.

셋째, 사회적 사건이나 문화적 현상을 대중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바라보았는지를 남기기 위한 다중 기억 프로젝트들도 있다. 미국 9·11 아카이브

7) 1878년 이후 뉴욕의 성소수자들(LGBTQ)의 생활에 관한 기록을 수집, 보존하여 공개하는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인 LGBT Community Center의 National History Archive(<https://gaycenter.org/archives/>)와 Archives of Lesbian Oral Testimony(<https://alotarchives.org/about>) 등이 있다(2020, 5, 10).

8) 캐나다와 호주에서 수십 년간 자행된,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하여 백인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은 완전한 실패로 마감하였다.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 사건들이다.

도 처음에는 사건의 목격자나 경험자의 구술과 사진 등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사건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다양한 기억행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 아카이브의 성격을 띤다. 홍대 클럽데이 아카이브는 특정 기간에 지역에서 이루어진 축제의 이모저모를 아카이빙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일상생활 혹은 일상문화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아카이브의 경우도, 한 축으로는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기록의 발굴·생산·수집에, 또 한 축으로는 사건의 직간접 경험자나 관찰자 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억할 의무'에 초점을 맞춘다. 후자를 고려할 때 이러한 아카이브도 일상생활 아카이브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넷째,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현상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아카이브도 있다. 이는 앞의 경우들과 유사하지만 학술적 활용을 포함한 2차적 활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북한의 일상생활 아카이브 구축의 일차적 목적은 학술적, 문화적 활용에 있으므로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사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다.

2) 2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일상생활 아카이브 사례

첫째, 영국 서식스대학의 '대중관찰 아카이브(Mass Observation Archive, 이하 MOA)'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일상의 기록은 일기(日記)다. 1937년 인류학자 톰 해리슨(Tom Harrisson) 등 3명은 “우리 자신의 인류학(anthropology of ourselves)”을 만든다는 슬로건을 걸고 프로젝트를 시작해 대중 일기를 수집하였다. 1937년 5월 12일은 영국 국왕 조지 6세의 대관식이 있던 날이었는데, 이런 날 보통 영국인들은 어떤 일상을 보냈는지 관찰하고자 시민들에게 일기를 작성하게 했다. 이 프로젝트는 1955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영국인 500여 명의 생활을 기록한 일기나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서가 모였다. 198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대중관찰 자료가 수집되었고 그 규모

가 2,500상자에 이른다. 서식스대학 도서관은 이를 ‘대중 관찰 아카이브’ 특별컬렉션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로부터 국가문화예술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이 프로젝트의 취지를 살려 서식스 대학은 2010년부터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를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세계 각국의 기관들과도 협약을 맺어 매년 5월 12일의 일기를 수집하고 있다.⁹⁾ 포클랜드 전쟁(1982), 9·11 사건(2001), 브렉시트 등 큰 사건이 일어난 해의 5월 12일 일기와 의견을 수집하였고, 2020년 5월 12일에는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기를 겪어내는 개인들의 일기와 소감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기록들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아카이브(Everyday Life Archives)이며, 현대 영국인의 일상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상 아카이브에서는 특정 시점의 개인의 일상적 경험이 스냅샷처럼 기록된 아카이브로서 공식성이 중시된다. 그러나 연구 설계나 구체적인 수집 기준 없이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기록이 생산, 수집된다는 점에서 연구에 활용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영국의 이민자 아카이브 ‘Moving Here’다. 이 아카이브는 영국으로 이주한 남아시아인, 카리브해인, 아일랜드인, 유대인에 대한 기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이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30개의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에서 수집한 15만 건 이상의 자료로서 사진, 예술 작품, 정부 기록, 포스터, 지도, 문서, 팸플릿, 신문, 인터뷰, 영상, 사물 이미지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영국 가족이 영국으로 데려온 인도 출신 하녀의 1932년 발급 여권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주민들이 스스로 생성했거나 기증한 기록으로 출신지, 이주 과정, 영국에 정

9)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명지대 디지털아카이빙연구소가 서식스대학과 MOU를 맺고 ‘5월 12일 일기수집 이벤트’ 한국파트너가 되어 2013년 5월 12일부터 한국인들의 일상 기록화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물을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수장고와 스토리지에 보관하고 있다(최효진·임진희 2015, 95-152).

작한 경험 등에 관한 구술과 문서, 가족사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 등을 포함한다. 이 부분은 참여형으로 설계되어 이주민이나 그의 후손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추가할 수 있다. 이주민들의 생애사는 물론 이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러한 자료는 이주민 아이들을 위한 학습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주제별로 기록과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The Valley of the Shadow’(이하 새도 밸리 아카이브)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이 아카이브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기록들을 미리 분석된 맥락의 틀 속에서 잘 짜인 스토리와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례이다. 남북전쟁이라는 대사가 주민들의 일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록을 통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 아카이브에서는 남북전쟁 전후 두 마을(인접해 있으나 전쟁 후 남군과 북군으로 갈린 버지니아주의 오거스타 카운티와 펜실베이니아주의 프랭클린 카운티) 주민들의 삶을 기록으로 대비하여 보여준다. 두 마을 주민들이 남긴 수천 건의 편지, 일기, 신문, 연설, 센서스 통계, 행정기록, 교회기록을 통해 주민 개개인이 전쟁을 어떻게 겪어냈는지 드러낸다. 가령 전쟁을 겪으면서 양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편지나 일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버지니아대학교의 버지니아 역사 정보센터가 개발한 이 아카이브에서는 남북전쟁 직전(1859년 가을-1861년 봄), 전쟁기(1861년 봄-1865년 봄), 전쟁 후(1865년 봄-1870년 가을)로 시기를 나누어 기록들을 전시관 안내도와 같은 메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¹⁰⁾

이러한 사례들이 북한의 일상생활 아카이브 구축에 맞는 방법론을 보여 주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사례는 현재 진행 중인 일상생활 기록 수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의 ‘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와 비교해볼 수 있다. 한국 근현대 민중의 생활문화 기록을 수집

10) <http://vshadow.vcdh.virginia.edu/choosepart.html>[인용 2012.5.11.], 설문원(2012a)에서 재인용.

하고 구술사 생산을 통해 “역사를 남기지 못한 한국 민중들의 생활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에서는 연구자들이 전국에서 만난 약 500인의 생애사 구술 자료가 생산되었다(김주관 2006).¹¹⁾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지만 동시대의 기억을 채집하는 작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둘째 사례는 탈북이주민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해준다. 영국 사회의 소수자로서 이민 공동체들이 자신의 뿌리 및 이민 정착기와 관련된 기록을 올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생산하며, 이러한 기록과 스토리 콘텐츠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 활동을 통해 집단기억이 축적되고 공동체가 스스로 집단기억을 만들 기회를 갖게 된다. 탈북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포용 및 통합정책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생각해볼만한 형태다. 북한의 생활문화 아카이브가 이를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례는 기록의 맥락과 출처를 제시하되, 재맥락화 가능성을 충실히 제공한다는 점에서 북한 아카이브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 특징을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을 보고 이용자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새도 밸리 아카이브의 경우, 두 마을 주민들의 삶의 패턴을 비교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었지만, 주제해설을 통해 비교하기보다는 각 기록을 통해 차이를 “스스로 드러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도 설명은 최소화하고 대신 적절한 기록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개인의 일상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개인기록의 비중이 크지만, 개인이 살았던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전쟁이라는 시대적 특성을 공문서, 군대기록, 신문기사, 통계, 교회기록, 예술작품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 기록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록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고

11) 음성 및 동영상 형식의 기록 서비스가 일정 기간 제공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되어 아쉬움이 있다.

있다. 셋째, 시기별 구성을 취하고 있고 각 시기 안에서 기록 유형별 메뉴를 제공하며, 기록물건별 목록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록의 특징과 의미를 해설해준다. 또한 기록이 전체 기록 DB와 연계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장 가능한 아카이브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넷째, 기록 간 연계와 비교가 용이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마을을 비교할 수 있도록 기록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각 기록과 자료 간의 연관 관계를 세밀하게 설정하여 적절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대중적 흥미를 끌 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콘텐츠도 제공하지만 연구자나 교수, 학생이 기록을 이용하여 스스로 연구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카이브로서의 성격도 갖추고 있다(설문원 2012a). 이러한 특징은 북한 일상생활 아카이브 구축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3) 일상생활 기록화와 ‘문화 아카이빙’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생활 아카이브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북한 일상생활 아카이브에 적합한 구축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과 ‘일상생활’은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이중의 장벽이다. 특히 아카이브의 구축목적이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에 있다면 이에 걸맞은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북한 일상생활 아카이브에는 ‘활동의 증거 구축’보다는 ‘자료 활용의 다원화’에 초점을 맞춘 방법론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먼저 자료를 선별하는 기준이나 방법을 정해야 한다. 기록 평가·선별을 위한 주류 방법론에서는 기능이나 업무활동의 증거로서 기록의 가치를 강조하며, 기록을 통해 재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활동이나 기능, 정책 등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따라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록을 선별·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능이나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기록의 가치를 결정한다. 조직기록뿐 아니라 개인기록의 수집을 중시하는 ‘도큐멘테이

선 전략'에서도 기록은 기본적으로 '업무활동의 증거'로서 '프로세스에 묶인 정보(process-bound information)'를 의미한다. 이때 기록은 업무프로세스라는 맥락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일상생활 아카이브 형성을 위해 기록을 만들게 한 활동이나 업무, 즉 기록의 생산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일상생활 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자료의 생산 맥락은 물론이고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사회체제라는 구조의 강제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자나 기술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맥락(ambient context)을 포함하는 아카이빙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기록화 대상으로 '일상생활'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동적 피사체이다. 일상생활을 기록화하는 것은 변화하는 대상을 재현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작업이다. 기록화를 통해 개인의 문화적 경험에 대한 수많은 세밀화가 수집되지만 그 세밀화들은 언제나 불완전한 모자이크일 뿐이다. 일상생활이라는 열려 있는 대상을 아카이빙할 때는 조직의 활동 기록을 선별할 때와는 다른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방법론을 이 글에서는 '문화 아카이빙'이라고 명명하였다. '문화 아카이빙'은 '문화를 아카이빙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화 아카이빙'은 기록화전략에 입각하여 '문화적 기억'¹²⁾을 기록으로 획득·축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문화적 기억'은 목적의식적으로 선별된 '활동의 증거'와 정보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테리 쿡의 제2패러다임 개념과 유사하

12) '문화적 기억'은 테리 쿡(Terry Cook)이 제시한 기록관리의 네 가지 패러다임 중 제2패러다임의 핵심 개념이다. 법적 증거에 초점을 맞추는 제1패러다임이나 사회 정체성의 재현을 강조하는 제3패러다임과 달리 1930년~1970년대를 특징짓는 제2패러다임에서는 '문화적 기억'을 강조한다. 아카이브에 축적되는 기록은 '자연적으로 남겨진 것(natural residue)'이 아니라 아키비스트의 의도적 선별을 통해 만든 것이다. 아키비스트는 증거에 대한 해석을 통해 '문화적 기억'을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카이브는 여전히 개인과 조직 활동의 증거이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가 평가, 수집, 기술, 해석되는 맥락은 주체의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아카이브의 본질은 아키비스트들이 학술적 활용을 고려한 평가·선별을 거쳐 형성한 문화적 기억이다(설문원 2015).

다. 그러나 21세기의 ‘문화적 기억’은 국가 차원의 메가 내러티브와 공동체나 개인의 수많은 소 내러티브를 포용하는 개념이다. 가령, 국가 관점에서 의 전쟁의 기억과 그 전쟁을 겪어낸 수많은 개인의 기억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주류와 비주류, 중심부와 주변부의 기억을 포괄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비주류와 주변부 기억의 수집에 초점을 둘 수도 있으며 이때 편향성이나 주관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화 아카이빙’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조직의 활동 증거로서 기록 외에 개인이나 공동체의 주관적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생성되는 기록에 주목한다. 또한 과거에는 아키비스트가 아카이브의 가치를 만드는 주체였지만 참여적이고 상호소통적인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록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의 역할도 중시된다. 기록의 가치는 기록에 내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과 그 기록을 이용하는 관계에서 다양한 어포던스(affordance)가 만들어진다. 학술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지, 법적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는지는 기록과 각 이용자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일상생활 자료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 아카이빙’이 필요하다. 일상생활 아카이브에서는 개별화된 경험과 기억을 중시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문화 아카이빙’에서는 역설적으로 사회적 맥락과의 연계를 더욱 강조한다. 파편화된 기억과 경험을 당대 사회적 맥락, 국가정책, 사건, 특정 장소 등과 연계함으로써 개인을 둘러싼 정치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인의 일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인 spanDoc 모형(SPAace-based Networked Documentation Model) (설문원 2012b), 사회적 갈등 기록화 모형(설문원 2014),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화 모형(설문원 2015)도 기본적으로는 문화 아카이빙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를 참고하되 북한 일상생활의 특징을 고려하여 아카이브 구축 모형을 설계해 보았다.

4. 북한의 일상생활 아카이브 모형

1) 구축 원칙

북한 일상생활 아카이브의 구축 원칙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일상의 ‘행위’와 행위를 규정하는 ‘구조’ 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한다. 둘째, ‘동적 기록화’를 통해 정보개체를 연계하고 안정적인 자료 축적 체계를 갖춘다. 셋째, 이용자의 열린 해석을 지원하며, 이용자가 다양한 기준으로 자료를 집합화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조직(분류 및 메타데이터)한다. 넷째, 출처와 맥락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의미 해석을 지원한다. 다섯째, 자료의 장기적 축적을 통해 통시성을 확보한다.

〈표 1〉 북한의 일상생활 아카이브의 구축 원칙

	원칙	취지
1	‘구조’와 ‘행위’ 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한다.	일상의 경험 기억(행위)과 이를 둘러싼 맥락(구조)을 포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2	‘동적 기록화’를 추진한다.	수집한 정보개체를 기술하고 각 개체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기술 체계를 갖춘으로써 아카이브의 체계성과 확장성을 갖춘다.
3	열린 해석을 지원한다.	분류 및 메타데이터를 통해 이용자가 자료의 다양한 기준으로 집합화하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출처와 맥락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출처와 풍부한 맥락 정보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료 해석을 지원한다.
5	자료의 장기적 축적을 통해 통시성을 확보한다.	변화하는 기억을 증거하는 기록을 장기적으로 축적하여 종단 분석을 지원한다.

(1) ‘구조’와 ‘행위’ 정보의 수집

첫째, 구조와 행위 정보의 수집과 연계에 초점을 둔다. 앞에서 밝혔듯이

일상생활은 ‘구조’와 ‘행위’가 연계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아카이브 구축의 첫째 원칙은 구조 정보와 행위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축적한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은 규범과 경험의 기록이 모두 필요한 영역이다. 일상의 행위를 규정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체제, 전통, 의례 등은 공식문서나 문헌 등의 자료를 통해 그 사실관계와 관행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요소가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양상은 경험적이고 해석적인 기록화를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구술이나 개인자료, 필사자료, 영상, 사진 등을 통한 기록화가 필요하며, 만들어진 기록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표 2〉 북한의 일상생활 기록화의 대상

기록화 영역	구조	행위
수집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구조’ 정보(체제, 정책, 사회 규범, 전통 양식 등을 포함) - 표현된 정보와 증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의 경험,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과 가치에 대한 정보 - 표현되지 않은 경험과 기억
수집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 문헌, 언론기사 등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기록, 구술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모습과 경험의 증거들을 수집하되 기억을 통한 증거의 우회적 수집 - (SNS 기록의 수집)

문서, 문헌, 언론기사 등으로 표현된 구조의 증거와 표현되지 않은 채 기억으로 남아 있는 행위의 증거를 모두 기록화의 대상으로 포함한다(설문원 2014). 아카이브에서는 텍스트로 재현된 것(textual representation)과 텍스트 바깥의(extra-textual) 실제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한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지는 각 연구의 방법과 철학에 따라 달라지며, 일상생활 연구에서는 후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상생활 및 문화에 관한 북한의 공식문서와 문헌, 언론기사는 ‘민족적 사회주의 교양의 확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따라서 표현된 자료를 통해서도 일

상생활의 모습을 온전히 알 수 없으며, 공식문헌으로 표현되지 않았거나 배제된 영역, 개인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실재를 찾아서 기록해야 한다(설문원 2014).

특히 북한의 일상생활은 관찰하거나 현장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탈북이주민 등의 경험 기억을 연구에 이용하게 되는데 기억의 포착을 위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해리포터와 혼혈왕자』에는 ‘펜시브(Pensieve)’라는 마법도구가 나온다. 사람의 기억을 꺼내서 커다란 바구니같이 생긴 ‘펜시브’에 담으면, 그 기억을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된다. 이 소설에서 덤블도어 교수는 펜시브 여행을 “사실의 견고한 기반을 떠나 기억의 흐릿한 습지를 통과하여 가장 터무니없는 어림짐작의 덤불 숲속을 여행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구술을 기반으로 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기억의 흐릿한 습지”와 “어림짐작의 덤불 숲”을 건너가는 것이다. 지머슨은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아카이브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지머슨 2016, 31-32).

(2) 동적 기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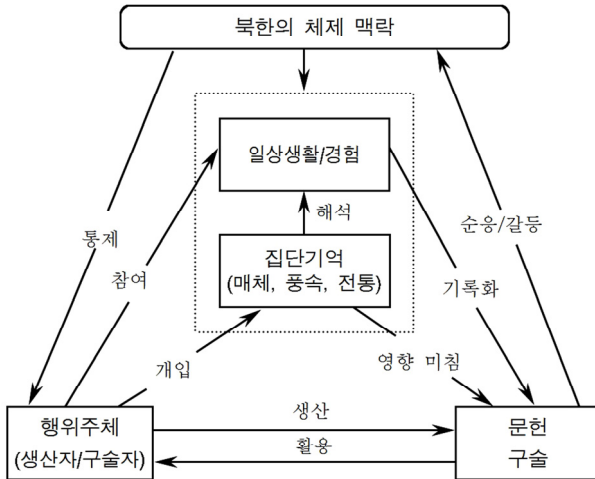
일상의 경험이 가진 사회적 의미는 경험을 둘러싼 체제, 규범 등의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와 행위에 관한 정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수집한 각 정보 개체를 분리하여 기술하고 이를 네트워킹하는 것이다. 정보개체 간의 상호 연계는 정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개체 간의 관계가 다양하게 맺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동적 기술(dynamic description)’이며, 이러한 기술 체계가 기록의 수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동적 기록화¹³⁾’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일상생활 기록화의 영역은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는

13) 에이드리언 커닝엄은 기록 기술과 생산자 기술을 분리한 후 이를 연계하는 방식을 동적 기술(dynamic description)이라고 표현한다(Cunningham 2000, 3-17). 설문원(2014)은 여러 개체를 분리하여 기술한 후 연계하는 방식의 기록화를 ‘동적 기록화 모형’ 혹은 ‘동적 내러티브 모형’이라고 명명했다.

ISO 23081의 메타데이터 영역을 응용한 것이다.¹⁴⁾ 북한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체제, 풍속·전통·사회 규범 등에 관한 정보, 일상생활 경험의 내용과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문헌과 기술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연계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영역별로 수집된 다양한 정보개체들에 대한 개별적 기술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연계되고, 새로운 정보개체가 추가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갖는다. 자료(기록과 문헌)의 지속적 축적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카이브는 열려 있어야 하며, 새롭게 축적되는 자료가 기존의 자료와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참여적이고 개방적이며, 기록의 연계 활용을 강조”하는 문화 아카이빙의 특징이기도 하다 (설문원 2012b).

〈그림 1〉 북한 일상생활 아카이빙의 구조



14) ISO 23081은 (준)현용기록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으로, 기록화 전략을 지원하는 표준은 아니지만 기록생산의 맥락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모형이라는 점에서 이를 응용하였다.

동적 기술은 이용자들이 다양한 내러티브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에서 ‘동적 내러티브 모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설문원 2014). 내러티브는 이야기 혹은 서사(敍事), 서술이라 지칭되지만, “이야기(내용요소)와 서술(표현방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오경환 2002, 9-10).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내러티브가 만들어진다. 일상생활은 수많은 이야기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내러티브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자료 원문이 분산적이고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환경에서 아카이브의 확장성을 유지하려면, 일상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 개체가 중층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수많은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설문원 2014). 연계 및 네트워킹을 위한 도구는 주제 분류체계, 패시 분류, 시소러스 등 다양하다. 각 정보개체가 주제나 사건 등을 중심으로 연계되고, 그 밖의 맥락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일상생활의 다양한 내러티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설문원 2014).

이러한 연계 기술 체계를 통해 정보의 지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이는 자료의 교차검증에도 유용하다. 북한 방문기나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북한 일상생활에 대한 정보에만 의존한다면 북한 방문자와 탈북자의 경험주의적 증언이 가진 한계가 연구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오창은 2018, 41). 따라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교차검증은 공식 자료와의 비교, 다른 증언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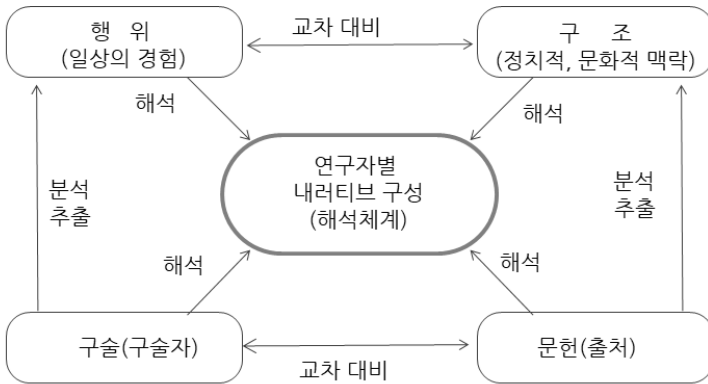
(3) 열린 해석의 지원

위와 같은 네트워크형 기술은 이용자들이 자료를 재맥락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맥락화는 “여러 출처의 기록을 의도된 체계에 따라 재배치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여러 기관에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기록을 물리적으로 수집하는 대신 다양한 재맥락화를 통해 일련의 활동

을 재현하는 네트워크형 기록화를 추진한다. 재맥락화를 원활하게 지원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디지털화된 원문 자료의 제공이고, 둘째는 자료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풍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다(다원적 분류체계와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용하여 이용자는 자료를 새롭게 집합화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과거의 기록을 현재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설문원 2012c, 17-22).

‘문화 아카이빙’은 출처(provenance) 중심의 자료 해석에 고착되지 않고, 자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지원하는 접근법이다. 자료에 대한 목록과 기술, 각 정보개체 간의 관계를 제공하지만 자료의 해석은 연구자의 몫이다. 연구자는 일상생활 연구를 위해 수집한 각 사례가 보여주는 “개별성과 고유성을 관통하는 집합적 속성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기도 하고, 어떤 사례는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상징이나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아카이브 활용체계는 <그림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 북한 일상생활 아카이브의 활용체계



이런 점에서 아카이브는 수많은 열린 내러티브의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열려 있다’는 것은 기록 해설이나 기술에 이용자 참여를 허용한다는 개

방의 의미보다는 아카이브가 완결된 내러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는다.¹⁵⁾ 기록을 이용하여 완결된 이야기 구조로 북한의 일상문화에 대한 아카이브를 개발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다. 국가기록원이 개발한 대부분의 기록콘텐츠는 완결된 이야기로 구성된 닫힌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거나 신속하게 갱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방향적이고 하나의 해석을 강요한다는 문제가 있다. 새로 발견되고 수집되는 기록에도 계속 어떤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려면 닫힌 구조의 내러티브가 아닌 열린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정보가 계속 추가될 수 있도록 열려 있으면서 정보 간의 관계가 중층적으로 형성되면 내러티브 자원이 풍부해진다.

내러티브는 보통 하나의 관점으로 진행되는 통제 프레임(controlled frame)의 형식을 갖게 되며(오경환 2002, 54-56). 아카이브에서 구조정보와 행위정보를 연계하는 과정에도 프레임(framed view)이 개입될 수 있다. 주제 분류체계의 설계나 자료 기술(description)에도 어떤 관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카이브는 가급적 한정된 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용자가 만드는 다양한 프레임을 통해 사건이나 행위를 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자료의 출처 및 생산 맥락 제시

자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려면 역설적으로 정확한 출처 정보와 풍부한 맥락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는 해석의 근거가 된다. 단순히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니라 문화 아카이빙 방법론에 입각한 아카

15) 최근 전시나 디지털콘텐츠 등의 분야에서는 자기완결적인 내러티브에서 수용자들의 참여적 창조가 가능한 스토리텔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그러나 수용자의 개방적 참여를 통한 스토리텔링은 콘텐츠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문화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학회』 14, 2009, 229-262쪽). 특히 북한 일상생활 아카이브에 참여형 스토리텔링을 적용할 경우 상호비방과 '반달리즘'으로 변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나의 전시', '내 기록 담기' 등의 개인화 메뉴를 통한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이브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출처나 충분한 맥락정보 없이 단순히 자료 제공만 한다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고, 활용된다 하더라도 연구 데이터로서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맥락은 일상의 ‘행위’를 규정하는 ‘구조’ 맥락과 자료의 구체적인 생산 맥락을 모두 의미한다. 자료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시기에,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 전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문헌이나 언론자료를 ‘읽으려면’ 출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출처의 성격에 따라서 자료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출처는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이때 신뢰성이 곧 자료 내용의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일상 경험 자료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밝혔듯이 일상 아카이브에서는 ‘주관적 진실’을 인정한다. 다만 아카이빙에 있어서 ‘사실’과 ‘주관적 진실’의 간극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출처 및 다양한 맥락 정보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구술자의 경험을 단순히 정보나 사실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며, 구술자가 처해 있는 상황 맥락을 함께 드러내야 한다(조정아 2015, 190-191). 생산 맥락에는 면담의 정황과 목적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 자료의 내용이 “A가 말한 그대로”이고, 구술의 배경이 함께 제시되고 있으며, 구술의 시점이 구술자 정보와 함께 보관되고 있고, 자료의 위변조 없이 보관된다면 그것은 진본 기록(authentic records)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내용이 진실하거나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시의 사건, 행사, 경험 등을 얼마나 충실히 재현하는지 말해주는 척도는 ‘신뢰성’이다. 기록관리 표준에서의 신뢰성 판정 기준을 적용하면, 그 사건의 직접적 목격자이거나 경험자가 만든 기록(혹은 그의 구술)인지, 사건·경험이 이루어진 시점과 기록 생산의 시간이 얼마나 가까운지 여부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맞게 북한 일상생활 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우며, ‘두터운

기술', 즉 자료에 대한 충분한 맥락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구술 자료인 경우 구술자의 생애사, 구술의 의도와 정황 등이 맥락 정보로 확보되어야 하며, '구조' 정보와의 연계 자체가 사회적 맥락 제공의 역할을 한다.

(5) 통시적 기록화의 추구

아카이브는 진행 중이고 지속적인 사회에 대한 기록이며 다양한 학술 데이터의 잠재적인 원천으로 특히 종단연구에 유용하다(베커 2020, 325-32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카이브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기억의 축적(accretion)을 추구하며, 2장에서 밝혔듯이 일상생활의 자료는 장기간에 걸친 축적이 중요하다.

일상생활 아카이브에서는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 객관적 실체로서 '오브젝트 세계'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규정을 받는 이벤트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¹⁶⁾ 그러나 어떤 사건의 기억을 물리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것과 역동적인 것을 불가피하게 배제해야 한다. 어떤 장면을 스냅샷으로 변조(translating)하는 것과도 같다. 이것은 더 이상 역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러한 활동의 정지된 견본일 뿐이다. 움직이는 이벤트를 고정되고 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변조'라는 한계를 가진다(Anderson 2013).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파이프 그림 밑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썼다. 파이프를 그린 것이지 파이프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억을 기록하고 나면, 그 기록은 더 이상 기억이 아니다. 때로 기록은 기억의 적이다. 기억이 구술을 통해 기록으로 고정되는 순간 파이프그림이 파이프가 아닌 것처럼 기억과 기록은 다른 것이 된다.

일상생활 아카이빙에서는 기록이 고정적이고 변화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16) 김벌리 앤더슨은 커뮤니케이션학자 월터 옹(Walter Ong)이 말한 이벤트 세계(event-world)와 오브젝트 세계(object-world)의 비유를 차용하였다(Anderson 2013).

증거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전통적 접근법이 아니라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기억을 증거하는 것”이 기록의 본질이라는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윤은하·김유승 2016). 정치, 사회, 경제 조건의 변화는 그 사회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이야기나 기록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수집되며, 과거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기록들은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¹⁷⁾

따라서 일상생활 아카이브에서는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긴 시간에 걸친 다양한 일상 경험 사례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문화 현상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함으로써 공시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자료의 장기적이고 체계적 축적을 통해 중단 분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시대의 기록을 수집해야 한다. 기록은 생산과 활용 시점의 시간 격차로 인하여 그 가치가 생성된다(설문원 2015). 지금도 진행 중인 일상생활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장기적으로 관리하면 이는 또 하나의 복한 일상문화사가 될 것이다.

2) 구축 절차와 적용 사례

앞에서 설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표 3> 같은 아카이브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여 아카이브 구축 절차를 설계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한 생활·문화·역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하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¹⁸⁾ 사례를 절차

17) 윤은하·김유승(2016)은 노근리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기록을 통해 분석하였다. 위의 글.

18) 이 사업은 “통일 한국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토대 작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분단 70년을 거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문화의 이질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원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 일상생활 문화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별로 분석해보았다.

〈표 3〉 구축 원칙에 따른 아카이브 작업 영역

	원칙	아카이브 작업 영역
1	‘구조’와 ‘행위’ 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한다.	기록화 영역 선정, 맥락 분석, 자료 조사, 수집할 정보원(출처)의 선정, 주제 분류체계 개발, 자료 수집
2	‘동적 기록화’를 추진한다.	메타데이터 스키마 설계, 패킷 분류체계 개발
3	열린 해석을 지원한다.	자료 기술, 주제 분류, 패킷 분류
4	출처와 맥락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 기술
5	자료의 장기적 축적을 통해 통시성을 확보한다.	자료 기술, 주제 분류, 패킷 분류, 보존

(1) 기록화 영역의 선정

일상의 ‘행위’와 ‘구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록화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을 수립해야 한다. 기록화 전략의 일반 원칙에 따라 북한의 일상생활 혹은 일상문화를 분석한 후 이에 입각하여 기록화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일상문화에는 방대한 주제가 포함되므로 순차적인 기록화가 필요하다. 혹은 특정 영역에 대한 집중적 기록화만을 실시할 수도 있다.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의 경우, 민속학 및 북한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북한의 세시·명절·기념일, 일생의례, 의식주, 여가와 놀이, 종교와 민간신앙을 망라하는 주제를 기록화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2) 맥락의 분석과 분류체계의 개발

기록화 영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영역별로 의미, 역사, 현행 제도와

규범 등에 대한 일차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1차 분류체계를 개발한다. 분류체계는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화(수집 및 생산)할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수집한 자료를 분류할 때 사용하기 위한 용도도 있다. 분류체계는 구조화된 체계를 갖출 수도 있지만 주제명 표목(subject headings)과 같은 기술적 체계(descriptive system)를 취할 수도 있다.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에서는 대, 중, 소의 3계층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표 4>는 이 중 중분류까지만 표시한 것이다. 중분류 하위에 소분류체계를 전개하였는데, 가령 중분류 전통명절 아래에는 설, 한식, 단오, 추석이 소분류로 설정되어 있다.

<표 4>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의 주제 분류체계(소분류 생략)

대분류	중분류
세시, 명절과 기념일	사회주의명절 및 의례, 전통명절, 기타 명절 및 절기, 계절별 시간비듬
일생의례	출생의례, 성인 및 입사 의례, 혼례, 상례, 제례
의식주 생활	의, 식, 주
여가와 놀이	공식, 비공식
종교와 민간신앙	종교, 민간신앙

이러한 주제 분류체계는 자료 분류를 위한 체계가 아니며 ‘주제어(subject entry)’의 분류를 위한 것이다. 수집된 자료나 구술기록에 주제어가 부여되면 자료가 자동으로 분류되는 효과가 있으며, 다중 분류의 효과도 있다. 또한 소분류에는 핵심 주제어들을 할당하여 핵심 주제에 관한 자료를 집중 수집하도록 설계하였다. 가령 중분류 ‘사회주의명절 및 의례’ 아래 소분류는 국가명절, 국가기념일로 분류되는데, 국가명절의 핵심 주제어로는 ‘광명성절’, ‘태양절’, ‘조국해방의 날’ 등이 있다. 각 주제어는 시소러스를 통해 이형(주제어의 다른 표현)이 통제되고 체계적으로 기술된다. 또한 핵심 주제어

를 기록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류체계의 탄력성을 갖추고 있다.

한꺼번에 주제어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가해가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구술 내용을 토대로 주제어를 새롭게 생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참여형 아카이브를 주장한 실튼과 스리니바산은 타자의 시각에서 실시하는 분류와 기술이 탈맥락화된 재현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두터운 기술’은 일상 행위의 주체로서 내부자의 지식구조를 통해 보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hilton and Srinivasan 2007).

또한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 구축 2~3차연도 사업에서는 출생의례, 성인 및 입사 의례, 혼례, 상례, 제례 등 일생 의례를 중심으로 기록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생 의례에서는 보통 ‘잔치’를 열게 되는데, 이러한 잔치는 그 사회의 생활문화 양식을 보여주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기록학자 바스티앵은 식민통치가 끝나고 공식 기록이 모두 식민지 본국인 미국과 덴마크로 옮겨진 상태에서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사람들이 자신의 집단기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축제라고 보았다. 집단기억이 집약된 ‘살아 있는 문화 아카이브’가 바로 축제다(Bastian 2009). 일생 의례에 따라 열리는 잔치 역시 북한의 살아 있는 문화 아카이브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중점적 기록화와 이를 활용한 일상 문화와 민속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3) 자료 조사 및 핵심 정보원의 선별

기록화 전략 중 기록 및 자료조사 단계에서는 기록화 영역 및 맥락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고, 앞서 밝힌 ‘구조’와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정보원을 찾아야 한다. ‘구조’ 정보와 관련하여 우선 북한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체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식 정보원과 매체를 파악해야 한다. 대체로 김일성/김정일 선집은 구조 맥락 정보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에서는 김일성/김정일 선집, 주요 단행본, 백과사전, 잡지/신문을 정한 후에 관련 기사를 추출하여 아카이브로 조직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행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방문기, 수기 등의 개인기록이나 구술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에서는 일상생활 및 문화 경험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구술조사를 추진하였다. 북한 체류 및 방문 체험이 있는 조선족, 북한화교, 중국인과 같은 주변인들을 구술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북한 내부자와 관찰자의 시각을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미지(사진과 삽화), 동영상(언론, 방송, 기록영화, 예술영화), 웹사이트 링크(단체, 협회 등의 사이트와 북한에 체류하거나 방문 경험이 있는 개인의 블로그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물건도 수집대상에 포함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나 외부자들의 개인 소장품 중에서 상징성이 있거나 의미 있는 물건들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확보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증거(물증)를 보강하였다.

(4) 메타데이터 스키마 및 패킷 분류체계 설계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채택한다. 가급적 메타데이터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집할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ISAD(G)나 더블링크어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에서 수집할 자료는 대체로 낱 건으로 존재하는 정보가 대부분이므로 더블링크어를 선택하였다. 국제 표준을 적용하면 외부 자원과의 공유와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구술 자료의 경우 필요한 요소를 추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메타데이터를 설계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패킷 분류를 적용할 요소들을 가려내는 것이다.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에서는 패킷 분류가 필요한 요소로 지역, 시기, 향유 계층(연령별, 생활수준, 성별), 생활공간, 매체, 포

맷 등으로 정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이미 입력시스템에 환경으로 설정해둔 패킷 분류표(항유계층 분류표, 생활공간 분류표 등)로부터 선택값(assigned value)을 고르는 방식으로 입력된다. 지역 대분류는 북한, 중국, 소련·러시아, 남한으로 구분되고, 북한의 경우 중분류로 도 혹은 특별시/직할시별로 구분된다. 시기는 북한의 문화사 분석을 토대로 <표 5>와 같이 분류하였다. 시기 분류는 자료의 생산시기가 아니라 자료에 포함된 내용의 시간적 범주를 의미한다.

<표 5>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의 패킷 분류표 사례: 시기 패킷

코드	시기	설명
1	1945년~1950년대	사회주의 문화 수용과 확산기
2	1960년대~1980년대	주체문화의 형성과 수령제 확립기
3	1990년대~2010년 전후	주체문화의 위기와 변형 시기
4	2011년~	김정은 정권 이후의 변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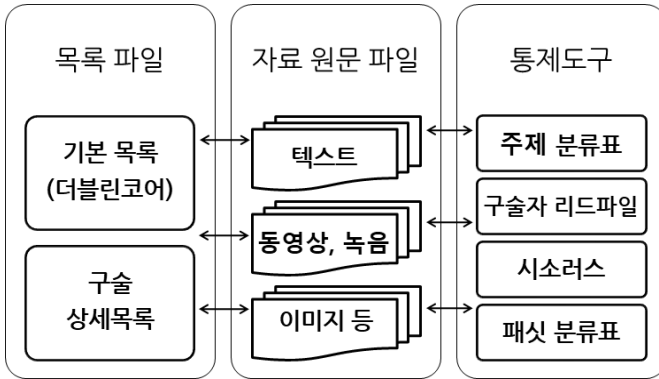
(5) 자료의 수집 및 입력

일상생활 기록화에서는 기록의 형식이나 출처에 구애받지 않으며 공공 기록과 민간기록, 조직기록과 개인기록, 아날로그와 디지털, 텍스트와 박물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원전 텍스트를 충분히 확보하고 이해하기 쉽게 분류, 기술함으로써 활용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메타데이터의 '기술' 요소를 활용하여 자료 요약을 제공한다면 북한식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남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 자료의 출처도 해당 메타데이터 요소에 정확하게 기술하고, 자료 생산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어 시소러스 및 주제어 해설 정보객체(예: 백과사전 항목)와 연계하는 정보도 기술한다.

또한 동적 기록화 및 동적 기술을 위해서는 간단하더라도 입력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링크 기능 없이 작업할 경우 정보 개체 간 연계 표현이 거

의 불가능하다.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에서는 <그림 3>과 같이 구성된 자료 입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연구자 및 조사자가 자료 및 메타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생산하고, 새로운 자료가 체계적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 입력시스템의 기본 구성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는 디지털로 구축되며 따라서 메타데이터는 물론 원문도 디지털로 관리한다. 선정된 정보원 조사를 거쳐 해당 주제어와 관련된 자료를 선택하여 디지털화한 후, 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고 원문 파일을 업로드한다. 자료의 디지털 원문은 텍스트, 동영상, 녹음, 이미지 파일로 저장되고, 각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목록으로 기록된다. 구술 방법론에 따라 구술을 실시하고, 녹음기록과 녹취록을 생산한 다음, 동일한 시스템에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고는 원문 파일은 보안상 별도의 저장 장치에 담아 별치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주제어’나 다양한 패킷 분류를 이용하여 검색(집합화)할 수 있다.

한편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에서는 구술 기록의 의미 이해를 돕는 맥락 정보를 제공하고, 구술 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술자 리드 파일을 작성하였다. 구술자 전거레코드의 역할도 하며 정보 요소는 가명,

본명(이름 일부 마킹), 성별, 출생연월, 생애 이력, 자원식별자로 구성된다. 또한 각 구술자와의 접촉 이력을 케이스 파일로 기술하여 구술 작업 과정에 대한 기록도 남기고 있다.

개인의 일상생활과 문화적 경험에 대한 구술 내용은 생애사라는 맥락 속에서 볼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주제 구술'은 '생애사 구술'과 연계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에서는 앞서 밝힌 생활문화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주제 구술'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애사 구술과 결합된 형태의 기록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맥락과 자료, 자료 간 연계

구술의 생애사적 맥락은 다시 더 큰 범주의 '사회적 맥락'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사회적 맥락'은 북한 당국의 정책이나 지침이 담긴 텍스트 자료에 담겨 있다.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에서는 주제어 및 각종 패킷을 중심으로 이러한 텍스트 자료와 구술 자료를 연계한다. 동일한 사건이나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의 공식 매체에 담긴 내용과 경험한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기억은 사뭇 다를 것이다. 북한의 공식자료와 구술기록이 주제어 및 다양한 패킷으로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은 이러한 차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북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맥락정보와 연계하고, 또 각 자료를 다양한 기준으로 집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분류와 메타데이터이다. 따라서 분류체계를 잘 설계하고, 이러한 체계에 따라 각 자료를 정확하게 분류하며, 메타데이터를 풍부하게 기술해주었다면 기본적인 연계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생활문화 아카이브'의 예를 들면, 백과사전에서 추출한 '태양절' 항목 정보와 평양에서의 태양절 행사 경험에 대한 구술 정보는 '태양절'이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연결된다. 한편 많은 공식문헌이나 신문 잡지에서

선별한 기사에도 모두 주제어가 메타데이터로 기술되며 이러한 주제어를 이용하여 백과사전의 항목, 문헌 기사, 구술 자료 등이 연결된다. 이 아카이브에서 주제어는 주제분류체계의 중분류 아래 열거되며, 주제어 통제를 위하여 시소러스를 갖추고 있다. 시소러스를 통해 각 주제어의 유사어 및 동의어 등이 통제된다. 분류체계나 주제어 시소러스는 구조화된 맥락정보로서 모든 자료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카이브에서 등뼈(backbones)의 역할을 한다. ‘두터운 기술’은 자료를 상세히 해설해주는 것과 함께 맥락과 충실하게 연계해줌으로써 구현된다.

아울러 패킷 분류는 이용자가 원하는 기준으로 자료를 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제어 외에 다양한 패킷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패킷 분류는 자료를 미리 분류하여 제공하는 방식(선조합)이 아니라 이용자 선택에 따라 자료를 조합하는 방식(후조합)을 지원하므로 이용자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자료 활용을 돕는다.

일상생활은 반드시 어떤 공간이나 장소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행위주체, 행위/활동, 행위/활동이 행해진 공간/장소를 핵심 요소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장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축적할 수도 있는데, 필요하다면 장소명 시소러스를 구축하고 ‘만수대언덕’과 같이 통제된 장소명을 메타데이터 요소로 기술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장소를 중심으로 자료들이 축적되면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 경험이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애착하는 ‘장소’와 그 문화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아카이브 구축은 매우 노동집약적인 작업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록이 축적되지 않으면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개별화된 경험의 집합체인 일상생활을 아카이브로 재현하려는 시도는 막막하기까

지 하다. 그러나 목표와 비전이 분명하면 갈 길을 찾을 수 있다. 북한 생활 문화 아카이브 구축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다. 경험을 통해 방법론도 점진적으로 개선해가야 한다. 일상의 흔적이 퇴적해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록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아카이브 정보로 획득하는 방안 (황진태 2019)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자료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일상생활 및 문화의 이질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문화 아카이빙 작업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북한 생활문화 연구가 진척된다면 북한을 문화적으로 포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3.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울.
- 고유환. 2015. 북한연구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 방법론, 연구방법』. 서울: 한울, 2015, 27-49.
- 김중욱. 2010. 북한 관료들의 일상생활세계: 희색의 아우라, 동국대학교 일상생활연구센터 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248-291.
- 김주관. 2006. 「문화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학회, 『지방사와 지방문화』 9(2), 447-483.
- 남근우. 2014. 북한 시장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 대항문화인가, 하위문화인가, 『통일인문학』 58, 163-194.
- 동국대학교 일상생활연구센터. 2010.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서울: 한울.
- 류길재. 2003. 김일성·김정일의 문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한울, 46-70.
- 류은영. 2009.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 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츠학회』 14, 229-262.
- 박순성·고유환·홍민. 2015.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 방법론, 연구방법』. 서울: 한울, 138-169.

- 베커, 하워드 S. 저, 서정아 역. 2020. 『증거의 오류』. 서울: 책세상.
- 북한연구학회. 2015.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 방법론, 연구방법』. 서울: 한울.
- 설문원. 2012a.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317-342.
- 설문원. 2012b.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설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37-455.
- 설문원. 2012c.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 설문원. 2014.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 :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사례로, 『기록학연구』, 42, 287-326.
- 설문원. 2015. 로컬리티와 지방기록관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151-172.
- 양문수. 2015.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연구>의 사례, 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관점, 방법론, 연구방법』. 서울: 한울, 2015, 109-137.
- 오경환. 2002. 조경공간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스토리텔링 방법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오웰, 조지 저, 박경서 역. 2003. 『코끼리를 쏘다: 조지 오웰 산문선』. 서울: 실천문학사.
- 오창은. 2018. 북한 연구에서 북한 문화연구로, 『문화과학』, 96, 38-56.
- 윤은하·김유승. 2016.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57-79.
- 이진경. 2002.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서울: 푸른숲.
- 이화연·윤순진. 2013. 밀양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일간지 보도 분석: 환경정의 관점에서, 『경제와 사회』, 98, 40~76.
- 조정아. 2015. 구술자료를 활용한 북한도시 연구: 이론적 자원과 방법,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 관점, 방법론, 연구방법』. 서울: 한울, 170-197.
- 조정아. 2010. 북한 교육일상연구: 과제와 접근방법, 동국대학교 일상생활연구센터 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서울: 한울, 397-431.
- 지머슨, 랜달 C. 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 2016.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최효진·임진희. 2015. 개인 일기의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와 전망: “5월 12일 일기컬렉션”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6, 95-152.
- 황진태. 2019.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에 관한 시론: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9(4), 118-156.

- Anderson, Kimberly. 2013. The Footprint and the Stepping Foot: Archival Records, Evidence, and Time, *Archival Science*, 13, 2013, 349-371.
- Bastian, Jeannette. 2009. 'Play Mas': Carnival in the Archives and the Archives in Carnival: Records and Community Identity in the US Virgin Islands, *Archival Science*, 9, 113-125.
- Cunningham, Adrian. 2000. Dynamic Descriptions: Recent Developments in Standards for Archival Description and Medadata, *Canad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25(4), 3-17.
- Hedstrom, Margaret. 2010.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More than a Metaphor, Less than an Analogy, Terry Eastwood and Heather MacNeil, eds.,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Libraries Unlimited, 2010, 163-180.
- Millar, Laura. 2019. *A Matter of Facts: The Value of Evidence in an Information Age*, ALA Neal-Schuman.
- Shilton, Katie and Srinivasan, Ramesh. 2007.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Archivaria*, 63, 87-101.